

소련기술 韓國이전에 창구 역할

“蘇기술에 대한 관심의 提高 기대 韓國생산기술 배우는 계기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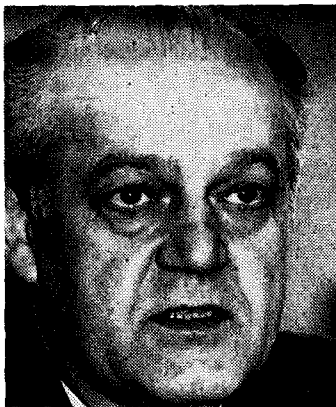
유리 베스팔로프
(蘇聯 특허청장관)

「蘇聯과 韓國의 기술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기술협력의 시작 단계에서 韓·蘇양국 특허청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1차 韓·蘇특허청 전문 가회의에 참석,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키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유리 베스팔로프 蘇聯특허청 장관(52)은 韓·蘇양국의 기술협력에서 특허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蘇聯특허청은 蘇聯의 각종 첨단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蘇聯특허청은 韓國이 蘇聯의 기술을 이전받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베스팔로프 장관은 蘇聯 특허청이 이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韓·蘇양국 특허청의 협력은 물론 이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베스팔로프 장관은 이번 訪韓기간중 蘇聯특허기술 설명회를 개최, 국내업체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韓國과 蘇聯특허청의 업무협정체결 이후로 韓國 민간기업과의 기술이전 협상이 활발해졌습니다. 럭키 금성의 폴리카보나이트 관련기술을 비롯, 5건 정도가 이미 계약체결 단계까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스팔로프 장관은 이같은 기술이전을 통해 韓國은 美國이나 日本이 이전을 기피하는 각종 첨단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반면 蘇聯은 韓國의 우수한 생산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기술이 산업화에 좀더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蘇聯의 특허제도도 변화해야한다고 밝힌 베스팔로프 장관은 발명자의 권리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蘇聯의 특허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蘇聯특허법의 개정은 특허제도의 국제화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韓國 등 국가와의 협력도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레닌그라드 大學 化學學 박사이기도 한 베스팔로프 장관은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화학성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蘇聯의 대표적 기술관료.

이번 訪韓을 계기로 韓國기업들의 蘇聯기술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베스팔로프 장관은 우리나라와 蘇聯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韓國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글은 서울경제신문 陳丙源 기자의 글을 옮겨 실은 것임(♣)>

발명은 국력이다